



01. 목회권면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지금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2. 예 배

주일찬양예배는 '한국기독교 근선교연합사역 회년대회'로 드립니다. 오후 6:30부터 식전 행사가 시작합니다. 5부 예배부터 모든 주차장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대중교통 및 명일여고 주차장 이용).

03. 창립기념주일

지난 42년간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주제: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① 창립주일예배: 7.10(주일) / 1-5부 예배

② 창립주일 저녁예배: 7.10(주일저녁)

-강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③ 창립기념 컨퍼런스: 7.2(토) / 예루살렘성전 및 부속실

-주제강연: 김하나 목사

-청년대학부 연합집회: 텔런트 신애라 집사

-선택강연: 이다니엘 목사(IBA한국사무총장), 김연약 선교사(미래세대선교회 대표)

손창남 선교사(前OMF 대표), 김희종 교장(좋은나무성품학교)

신태균 박사(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

④ 선교사역전사회: 7.2(토) - 12(화) / 예루살렘성전 지하 1층

⑤ 선교 특별새벽집회: 7.5(화) - 9(토) / 1부 오전 5:50, 2부 오전 7시, 3부 오전 8:30

- 강사: 7.5(화) 김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 7.6(수)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7.7(목) 최정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7.8(금) 김삼환 목사

7.9(토) 김하나 목사

04. 16기 안수집사 · 13기 권사 임직감사예배

16기 안수집사 · 13기 권사 임직감사예배가 7.9(토) 오후 3시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

05. 교역자 동정

본 교회 권삼열 목사께서 교회 개척(미국)을 위해 사임하였습니다.

06. 청년대학부 하계 단기선교

2022년 청년대학부 하계 단기선교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국가 / 기간: 이스라엘 / 6.27(월) ~ 7.8(금), 에티오피아 / 6.27(월) ~ 7.8(금)

캄보디아 / 7.2(토) - 9(토)

· 문의: 청년대학부 ☎ 02-6930-9493

07. 국내선교부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6.25 한국전쟁 72주년 복음통일주간'을 맞아 통일기도문 쓰기 및 전시회 행사를 진행합니다.

· 기간 / 장소: 6.26(오늘)까지 / 예루살렘성전 지하 1층

08. 새가족교육

3주간의 명성교회 새가족교육(신앙의 기초, 명성교회 역사 및 사역)을 아래와 같이 개강합니다(현장등록가능, 교재제공).

· 주일반: 7.3(주일) 오후 1:30 - 3시, 호산나실(예루살렘성전 지하 1층)

· 월요일반: 7.4(월) 오전 10:30 - 12시, 두란노실(살롬관 2층)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인 노아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명확한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불명확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의 중요한 인물은 어떤 명확한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명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해도 신뢰하십시오.** 시간의 불명확성은 우리 인간에게 큰 도전이 되는 한계이자 어려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분명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방주를 계속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마지막 질문도 바로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묻기보다 이런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장소를 알지 못해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정착했던 브엘세바나 비옥한 세겜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 은혜를 주십니다. 불명확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도 약속의 땅에서 마치 낮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불명확성 속에서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목사

김남수 김다림 김동민 김동진 김득열 김병규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요한 김우종 김윤희  
김은영 김은자 김준곤 김준환 김준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요한 박현규  
방유경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송한솔  
신경민 신동신 신중현 여주형 우종협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대선 이덕기 이서구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묵 임지환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계영 천해림 최대열 최에녹  
한바울 한정민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안주훈 최운배

교육목사

권오병 김은혜  
이승갑

전도사

권예찬 권혁현 김경환 김동욱 김믿음 박경애  
박고운 박근우 박보하 박우진 신재희 오대용  
이경환 이상인 이 성 이울관 이은세 이재민  
이주현 임기도 정구현 편경호

교육전도사

김석현 김승택 김용문 김용기 김윤영 김준영  
문태은 박경민 박재현 박초롱 손찬영 송영호  
이성현 이준민 이준식 최하경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박종근(중국)

오직주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금주 신생아	명성교회 출생 신생아(2022년 1월 - 현재)
3명	총 79명

